

#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색과 남북 관계

윤덕희 / 명지대학교 교수

## 머리말

**최** 근 몇년 동안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관계에 있어 가장 침체된 분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올해 안으로 김정일이 당 총비서 또는 주석직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남한의 사회·문화 교류의 접근 방법은 기능주의적 전략에 의거해 남북한 사회의 내용적인 접근보다는 현상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의 내면에는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사회를 기존의 남한 사회로 '동질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교류의 목적이 남북한간의 진정한 사회 통합에 있다면, 남북한 사회의 내용적인 접근, 나아가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

에서는 우선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이질성 및 공유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이질화 극복과 공유점 확대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남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비교 인식

남북한 사회의 특수성은 체제의 근본 성격, 근대화, 분단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체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이질화를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인민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극성을 지닌 체제로 사회 변동을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회와 문화는 상당한 이질화를 겪어왔다. 즉,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를 중요시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의 획일성과 폐쇄성, 남한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대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성격의 상이성에 따라 남북한의 가치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에 귀착하는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특징이며, 반면에 남한에서는 다원주의적·개인주의적·물질 추구적인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근대화로 인한 사회·문화 변동을 비교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60년대 이래 각기 근대화를 추진해왔으나 서로 다른 근대화 전략으로 사회 발전 과정에서도 차이를 겪어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성격도 서로 달라졌다.

남한에서는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적인 생활 형태와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사회 변동의 일반적인 정향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경우, 공산주의적 동원체제에 의해 근대화가 추진됨으로써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의 일반적인 정향에서 크게 벗어났다. 근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집단주의적 사회가 유지되었으며, 획일적 문화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80년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비교함에 있어 ① 체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이질화를 지적할 수 있고, ② 근대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지적할 수 있으며, ③ 전통 문화 측면에서 분단 이래 남북한의 전통 문화가 많이 파괴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고, ④ 분단 문화 측면에서 남북한의 사회를 공히 지배하고 있으며 민족간 대결 의식과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냉전 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대에 들어서 북한에서도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시장 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수용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가치체계에도 변화 조짐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물질과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의 상승, 개인주의적·실용주의적·비교 의식적 가치관의 증대 등의 조짐이 엿보인다. 이는 근대화 전략과 과정의 상이성으로 인한 사회 변동 및 문화 구조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산업화에 의한 문화 변화의 정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통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분단 이래 남북한 양쪽에서 전통 문화가 많이 파괴되었다. 남한에서는 산업화와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초래한 상업주의적 대중 문화의 폐해로 인하여, 전통 문화가 급속히 해체됨으로써 생활 문화나 의식 구조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화의 도입으로 전통 문화가 정치적·계획적으로 파괴되었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성격 및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남북한이 접근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결론은 첫째,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비교해보면 각각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은 자율성·다양성의 보장과 개방성이 있어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은 반면, 계층간·지역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심화, 물질만능주의·가치 의식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 문화의 상품화, 외래 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민족 문화 퇴조, 문화의 파편화가 문제이다.

북한은 이데올로기 규범에 의한 사회 갈등 억제, 사회 평등 보장,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외래 사조에 대한 민족 문화 보존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에 대한 자율성 억압, 사회의 획일화, 개인 창의성 발산 등은 취약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규범관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며, 전통 문화의 뿌리는 잔존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70년대 이래 정부의 민족 문화 정책과 민간 부문의 민족 문화 운동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족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북한에서도 정권에 의한 전통 문화의 정치적 이유와 주민들 사이에 뿌리깊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유지·부활시키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과 주체사상의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하는 데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 문화를 수용 또는 복구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였다. 특히, 80년대의 국내외적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문화 유산을 대거 회복하고 있다.

넷째로, 분단 문화의 측면에서 남북한 사회를 비교할 수 있다. 분단 문화의 핵심적 내용은 남북한 사회를 공히 지배하고 있으며 민족간의 대결 의식과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냉전적 문화이

다. 이러한 냉전적 문화는 각 사회에서 권위주의체제와 권위주의적 문화, 군사 문화를 유지·확산시켜왔으며, 또한 획일주의의 지배와 다원주의의 약화 조장을 통해 시민 사회의 자율적 형성 억제 등의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해왔다. 남북한의 대립과 냉전 문화는 각 사회에서 민족주의의 왜곡화 현상을 초래하여, 민족 국가를 이룩하여야 할 당면 과제로서의 민족주의는 밀려났으며 정권의 정당화를 논리화시켜주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성격 및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남북한이 접근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비교해보면

각기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은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개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심화, 물질만능주의와 가치 의식의 부재 등이 유발하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 문화의 상품화, 외래 사조의 구분없는 유입으로 인한 민족 문화의 퇴조, 문화의 파편화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이데올로기와 규범에 의한 사회 갈등의 억제, 사회적 평등의 상대적 보장,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외래 사조에 대해 민족 문화의 보존 등이 사회 통합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사회에 대한 자율성 억압, 사회의 획일화, 개인의 창의성 말살 등은 북한 사회의 심각한 취약점으로 남아있다.

둘째, 남북한 사회의 공유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해오면서 이를 통해 근대적 사회 구조에로의 사회 변동과 문화적 변화를 겪어왔다. 또 다른 공유점은 남한과 북한 모두가 나름대로 민족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고 전통 문화를

둘째, 남북한 사회의 공유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추진을 통해 근대적 사회 구조에로의 사회 변동과 문화적 변화를 겪어왔다. 또 남북한 모두가 나름대로 민족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고 전통 문화를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사회가 각기 또는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왜곡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화 지향으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의 방향과 민족 전통의 강조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사회 문화적 정향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북한 사회가 각기 또는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왜곡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통일이 그동안 분단으로 왜곡된 양쪽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일깨워준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각 사회문화 체제를 내부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된다.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방향

이상의 논의는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 추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단계별·사안별 대응이다. 첫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사회 또는 문화와의 활발한 접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남북한이 비이념적 분야에서 공동 사업 및 협력을 추진하고 기존의 남북한 민간 단체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 의존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 있어서 양 체제와 차이에서 오는 심각한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간 상호 접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다방면에서 접촉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같이 추구해나갈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단계별·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사회 또는 문화와의 활발한 접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 후 함께 살

게 될 사람들의 문화를 활발히 접촉함으로써 상호간 사회 문화적 차별성과 유사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에서 창작된 문예 작품이나 출판물을 상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민간 문화 단체나 사회 단체들 또는 대중 매체가 상대방의 문화 활동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비이념적 분야에서 공동 사업 및 협력을 추진하고 기존의 남북한 민간 단체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 의존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간 사회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되도록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 지향 및 생활 양식의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는 공동 생활을 통해 인식의 공유와 상호 이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공동 생활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각 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균형있는 비판 의식과 더불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남북한간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1)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윤덕희·김도대(1992),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통일연구원을 참고할 것.

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계층  
적인 통로를 열어 협력을 확  
대해야 하는데, 청년 단체,  
학생 단체, 노동조합, 농민  
단체 등과 같은 민간 사회

단체들이 광범위한 협력 사업과 결연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두번째  
고려 사항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간 상호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일은 통일 과정  
의 시작이며, 통일 후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통일 후 사회 통  
합의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된다. 그러  
나 사회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자  
가 접촉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항상 상호 이  
해와 호감을 증진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교류하는가에 따라  
호감이 생기기도 하고 적대감이 생기기도 한  
다. 교류의 양뿐 아니라 접근 방법도 중요하  
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서로 대등  
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보상을 줄 때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서로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한쪽이 더 큰 세력을 가  
지고 관계를 주도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억

둘째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는 서로가 경쟁 상대로서  
교류하기 보다는 협동의 파트너로, 공동운명체로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주제와  
채널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지로 따라가기는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거나 적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대등한 입장에서 정서의 동  
일성을 확인하는 문화적 교류를 먼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쪽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물자나 기술 등의 경제적 교류는 실질적 이  
익을 주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  
이나 어느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기 쉬우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는 서로  
가 경쟁 상대로서 교류하기 보다는 협동의  
파트너로, 공동운명체로서 만나는 것이 중요  
하다. 예를 들어, 남북간의 친선 게임을 갖는  
것보다는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외국과 친선  
게임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인 남북 교류 방  
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아시안게임이나 올  
림픽 등의 국제 경기에서 남북한이 공동 응  
원을 하거나 외국팀과 경기하는 상대팀을 열  
렬히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간  
얼마 안되는 남북의 민간 교류 가운데 '아시  
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몇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동질성의 확대'와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정태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질성을 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인식하는 것, '획일성의 부재'가 아니라 '다양성의 조직화'가 사회 통합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는 민족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해나가는 꾸준한 작업이어야 한다.

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제회의에서, 남북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일본의 정신대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함께 벌이면서 민족공동체의 의의를 확인하고 우의를 다져가는 것은 남북 교류의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2년 월드컵 남북한 공동 개최 문제는 통일 문화 형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주제와 채널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민간 단체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한간의 신뢰 관계 회복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통일 노력이 공신력을 얻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 맺음말

통일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념을 지닌 채 살아오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면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이질성들이

서로 뒤섞이는 과정이다.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동질성의 확대'와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정태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질성을 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인식하는 것, '획일성의 부재'가 아니라 '다양성의 조직화'가 사회 통합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는 민족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해나가는 꾸준한 작업이어야 한다. **統**